

포항시, 농식품 수출정책평가 ‘대상’… 수출액 261% ‘굉충’

수출 다변화·신규 시장 개척
지역 농업 전략적 접근 나서
채소 등 품목 확대 전략 효과

포항시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며,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농식품 수출정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 달성도, 수출 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노력, 수출 정책 참여 등 12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4년간 최우수상을 받아 온 포항시는 이번 대상 수상을 통해 지역 농업의 체질 개선과 농식품 수출 전략이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이강덕 시장의 강한 정책 의지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2025년 농식품 수출정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포항시 관련 부서 직원들이 9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된 결과로,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평가에서 포항시는 딸기, 토마토, 시금치, 쌀, 배추, 무 등 다양한 품목을 기반으로 한 수출 다변화 전략과 틈새시장 공략, 수출전문단지 육성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영국, 아랍에미리트, 호주, 몽골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해 총 18개국으로 수출 유통망을 확대한 점도 주목을 끌었다. 기존 과실류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수

맞춤형 품목 개발과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인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포항시는 한때 철강산업 중심의 도시 이미지에 가려 농식품 수출 분야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농산물 내수 가격 불안과 지역 판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농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나섰다.

시는 2018년 수출전문관을 채용하고, 포항의 지리적·환경적 강점을 살린 신선 농산물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 왔다.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해 품목별 육성 체계를 구축했으며, ‘수출의 꽃’이라 불리는 신선 농산물 시장을 집중 공략해 왔다.

그 결과 포항시의 농식품 수출액은 2018년 34억 원에서 2024년 89억 원으로 약 261% 증가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채소류와 곡류 중심의 품목 확대 전략이 주효하며, 과일 위주 수출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었다. 아울러 배추, 무, 토마토, 쌀 등 경북도내 1위 수출 품목을 집중 육성해 수출 품목의 다양화에도 성공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어 대상까지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포항 농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부산시, 탄성소재연구소 착공

지자체 최초 산업혁신구역 지정
소재·부품 기업 집적지 강점 살려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고, 세계적 신소재 연구 개발 혁신거점이 될 탄성소재연구소를 9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탄성소재연구소는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소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사상구 삼락동 380-32번지 내 부지 2817㎡, 연면적 3745.71㎡ 규모로 건설된다.

지하1층~지상5층 규모로 연구동 1개와 장비동 1개가 들어서며 연구실, 회의실, 교육실, 장비분석실, 기업 입주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탄성소재는 모빌리티, 전기전자 등 전 산업에서 방진·씰링 목적으로 활용되며 진동, 소음 등 이음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소재다.

부산시는 소재·부품 산업 기업 집적지인 지역 강점을 살려 첨단 신소재 분야 전문연구소를 건립하고자 그동안 부지 매입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시교육청,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상구 등 관계 기관과 오랜 시간 꾸준히 협의해 왔다.

2019년 국토교통부가 14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부지 매입 협의를 시작했다.

관계 기관과의 오랜 협의 끝에 사상 공업지역활성화 시범사업 구역 중 탄성소재연구소 사업부지를 분리해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업부지를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필지 분할 및 부지계약 등을 성사키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外인 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전라남도는 외국인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외국인주민 증가율은 18.5%로 전국 1위를 기록, 외국인주민의 의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크고,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전남도의사회와 협력해 6월부터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병원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진료비의 약 30%를 감면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줄



전남도의사회의 외국인주민 의료봉사./전남도

계획이다. 전남 외국인 통합지원 콜센터와 연계해 의료 통역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통역 서비스는 한국어를 포함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6개 언어로 제공되며, 7월에는 태국어, 우즈베크어, 스리랑카어, 필리핀어 등 9개 언어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주시, 中企 해외진출 체계적 지원

디지털 기반 통합 지원

경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윈스톱 해외수출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홍보부터 바이어 상담, 유통망 입점까지 수출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달 지역 내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25개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KOTRA 대구경북지원본부와 협력해 사업

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문가 멘토링 ▲제품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매칭 ▲글로벌 유통망 입점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전략과 현지 진입 방안에 대한 1:1 전문가 멘토링이 실시되며, 제품의 특장점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도 병행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KOTRA 수출 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SNS 채널을 통해 해외시장에 노출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북도, 데이터센터 산업 인프라 확장

2개 사업 선정… 국비 27억 확보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도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테스트베드 조성 지원’과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 2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27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테스트베드 조성 지원사업은 데이터센터용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외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되며, 국내 기술의 실증과 성능 검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관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는 경북도와 함께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관

련 4개 기업과 협의회를 구성해 국산 장비 실증을 추진한다.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실제 데이터센터 환경을 재현한 체계적인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며, 향후 고도화와 기술 개선 피드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방의 데이터센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관기관은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이며, 경북도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경북ICT클라우드협회가 협력해 ‘경북형 클라우드센터’와 연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북(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목포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목포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이동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환경사랑상품권 3억 추가 발행

경상남도가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기념해 경남환경사랑상품권 3억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올해 2월과 4월에 이어 3번째로, 경남도는 연간 4차례에 걸쳐 총 9억 1000만원 규모의 환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환경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전용 상품권으로 운영된다.

도민들은 정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도내 1000여개 초록매장에서 다화용기 포장 주문시 사용 가능하다.

이 상품권을 통해 도민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동시에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다화용기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청도군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6월 9일부터 한 달간 매전면 당호리 마을에서 도시민 대상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실제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1기에는 신청자 중 3개 팀이 선정되어 참여하며, 청도군의 특색을 반영한 일정 속에서 귀농·귀촌 정책 교육과 현장 영농 체험 등을 진행한다. /청도(경북)=김준한 기자

울주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

울산 울주군이 50세 이상 군민에게 지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 5일 만에 6400여 명이 몰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자는 642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은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고, 접종 당일 울주군에 주소가 둔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